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 법 원]

국회의원(여수갑)

이몽준

●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정신질환 이유로 징역 30년



<출처 : SBS>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피해자 유발(보통)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않음 · 진지한 반성

흉악범에게 심신미약 적용해서 '징역 30년'?

●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표적으로 한 계획적 범죄



2016. 5. 17.
오전 1시 7분

정신질환 가해자,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고의로 살해

<출처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 법 원]

국회의원(여수갑)

이몽준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대통령은 골프 치시라?

골프 치시라고 했는데
왜 안 치시는가?
내수를 살려야 한다



2016. 9. 24, 장·차관 워크숍에서



성주주민들 사드배치 반대 시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 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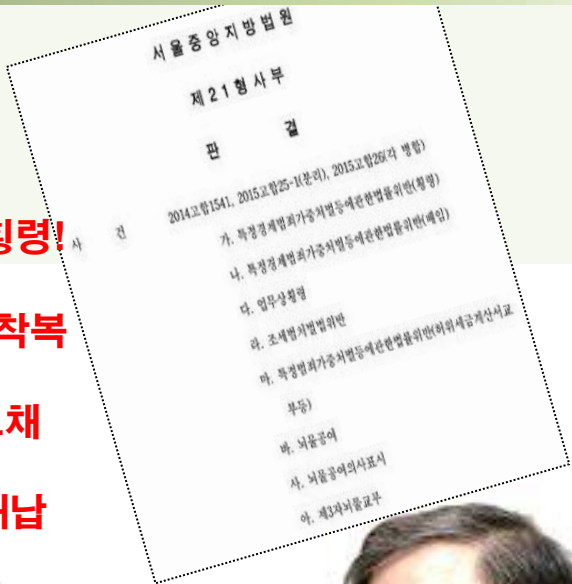
국회의원(여수갑)

이몽준

● 김황식 전 총리 상습횡령범인 최등규 대보회장 변론

기업범죄
백과사전

- 허위계산서로 물건 샀다 속이고 223회 145억 횡령!
- 임직원 23명에 보너스 줬다며 돈 빼내 51억 원 착복
- 컴퓨터구입 때 184회 대금 부풀려 10억 원 가로채
- 임직원 보너스 소득세 21억여 원 회사 돈으로 대납
- 군 공사 3건 관련해 15명에 1~2천만 원 뇌물 살포
- 계열사 일부 직원 이중등재수법으로 수십억 원 횡령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



전 국무총리
김황식 변호사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38인 변호사 명단]

강신욱	고현철	김능환	김달식	김상원	김용담	김용준
김주한	김지형	김형선	김황식	박만호	박우동	박일환
박재운	서 성	손지열	송진훈	신성택	신영철	신정철
안대희	안용득	유지담	윤영철	윤일영	윤재식	이강국
이규홍	이돈희	이명희	이용우	이임수	이정우	이흥훈
정기승	차한성	천경송				

[대법원 사건 중 판결선고된 사건 1,875건]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연도별 수임 건수 10위(2011.01~2016.08)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U(53)	U(84)	U(96)	U(53)	U(74)	V(19)
2	Y(35)	W(41)	V(40)	V(41)		U(13)
3	Z(32)	Y(34)	X(32)	Y(32)		X(13)
4	B2(21)	X(33)	W(33)		E(31)	E(11)
5	B(19)	B(19)		A(13)	X(30)	W(8)
6	A2(17)		C2(26)	Y(13)	C2(23)	A(8)
7	W(17)	D(20)	Z(24)	W(12)	D2(19)	C2(7)
8	D(17)	A2(19)	B2(19)	C(12)	A(18)	A2(4)
9	D2(16)	F(17)	C(17)	D2(11)	Y(17)	B2(4)
10	C(11)	C(16)	A2(16)	B2(10)	A2(15)	Z(4)

특정 변호사 10인에게 사건 쏠림!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재직기간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 175건)

순위	변호사	같이 근무한 적 있는 현 대법관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 수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C2	76건 중 34건	44.74%	9
2	V	158건 중 56건	35.44%	2
3	E	58건 중 20건	34.48%	15
4	X	127건 중 31건	24.41%	4
5	A	67건 중 16건	23.88%	11

수임건수 11위 이내 변호사 중 3인의 연고관계 수임비율, 23~44%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고교동문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 185건)

순위	변호사	고교	고교동문인 현 대법관의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수 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U	ㄱ고교	373건 중 68건	18.23%	1
2	C	ㄴ고교	66건 중 12건	18.18%	13
3	E	ㄷ고교	58건 중 10건	17.24%	15
4	W	ㄹ고교	140건 중 23건	16.43%	3
5	D2	ㅁ고교	76건 중 11건	14.47%	10

수임건수 10위 이내 변호사 중 3인의 고교동문 연고관계 수임비율, 14~18%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 법 원]

국회의원(여수갑)

이몽준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매듭짓는 책임회피형 사과문

-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 최근 계속되는 **몇몇 법관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어느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법원이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영향으로 다른 법관의 명예도 저절로 실추되고 맙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두 번에 불과”



● 셀프 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책 발표

2016년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 내용

- 법관윤리 교육강화
- 법조윤리 신고센터 신설 검토
- 사생활 영역 대인관계에 대한 윤리행동 기준 마련
- 위법 부정한 재산증식 드러날 시 연임 제외
- 직무관련성 여부 관계없이 징계절차 실시
- 법관 징계절차에서의 충분한 자료 확보
- 상시적, 지속적 예방활동 강화
- 비위법관 공무원 연금 감액제 도입
- 징계부가금 부과
- 비위법관 재판 업무 배제



● 셀프 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책 발표

2015~2016년 판검사 관련 주요 비리 사건

법조인 (나이, 사법연수원 기수)	지위	혐의 또는 의혹	사법처리
김수천 (57세, 15기)	부장판사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받고 1억 7천만 원 수수	2016.09.02 구속
A (45세, 28기)	부장판사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	2016.08 불구속 입건
우병우 (49세, 19기)	현 민정수석	아들 운전병 채용 의혹,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의혹	특별수사팀 수사 중
김대현 (48세, 27기)	부장검사	후배 검사(올 5월 자살)에게 상습 폭언, 폭행	2016.08 해임 유족, 인권위에 진정
진경준 (49세, 21기)	검사장	넥슨 등으로부터 9억여 원 뇌물 수수 혐의	2016.07 구속 기소
홍만표 (57세, 17기)	변호사, 전 검사장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수사 청탁 등의 대가로 5억 원 수수 15억 원 탈세 혐의	2016.06 구속 기소
최유정 (46세, 27기)	변호사, 전 부장판사	정운호 대표 등 재판 편의 명목 수입료 100억 원 부당 수수	2016.05 구속 기소
유○○ (30세, 40기)	판사	대학 후배인 여대생 2명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	2015.09 불구속 기소 1심 벌금 700만원, 사표 수리
최민호 (44세, 31기)	판사	법원,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사채업자에게서 2억 6800여 만원 수수한 혐의	2015.02 구속 기소 징역 3년 확정